

漁港消息

발행경인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金在克

社団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비매 품

등록번호: 라3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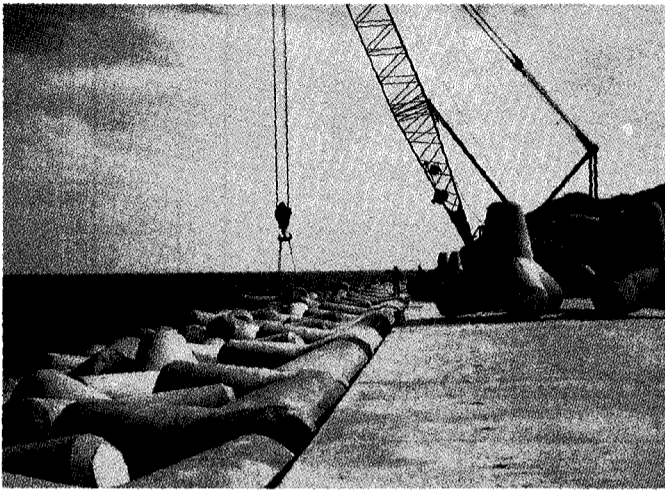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誠 實
● 奉 仕
● 創 意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올해 어항공사 順調 연내 38곳에서 준공

7~8월 태풍등 어려움 딛고



올해 어항공사가 계획공정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다.

수축 28건 · 재투자 5건 · 유지보강 9건 등

건설시공 공정계획도 초과

올해 수산청 어항공사 계획대로 마무리 단계에
가 순조로운 공정을 보여 들어섰다.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수축사업 28개항, 28건, 재투자 4개항, 5건, 유지보강 9개항, 9건 등 총 41개항, 42건 중 11월 15일 현재 전부 격포항, 경남 물간항 등 21건이 준공됐으며, 이달중에도 강원 수산항, 전남 안마항 등 12건의 올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국회농림수산위의 9억 8천

내년 6백 49억 투자

국회농림수산위원회는 내년도 어항예산 가운데 제2종 어항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9억 8천 3백만원 중 9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이로써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년도 어항예산은 총 6백 49억 3천 7백 70원 4천 3백 40원, 제2종 어항 예산 9억 8천 3백 40원 8천 9백 90원, 어항관리비 2억 8천 9백 90원, 어항사

관 등 8개 어항을 각각 새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산청은 11월 22일 매물도항의 공사 입찰에 이어 현재 기본설계 작업에 들어간 7건의 어항건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예산내피 및 선박집안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도 공단 전장포 등 4개 항의 매물도항 등 4개 항의 예산을 14.2% 증액된 1천 6백 49억 3천 7백 70원 4천 3백 40원, 어항관리비 2억 8천 9백 90원, 어항사

신규 지정항잔여 8곳

명년부터 본격개발 1천 1백 97억 투입

수산청은 최근 지난 91년도에 신규지정되었으나 개발되지 않은 8개항에 대해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부터 총공사비 1천 1백 97억을 투입, 초도 공단 등 8건의 어항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수산청은 예산내피 및 선박집안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초도 공단 전장포 등 4개 항의 매물도항 등 4개 항의 예산을 14.2% 증액된 1천 6백 49억 3천 7백 70원 4천 3백 40원, 어항관리비 2억 8천 9백 90원, 어항사

수산청장 위촉

수산청장 위촉
수산청장 위촉
수산청장 위촉

올해 어항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내년 施工을 생각한다

시론

어느덧 올해도 한창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도 예년처럼 비교적 풍우순조로 워낙까지 특별한 문제점없이 계획대로 어항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어항공사라고 보면, 단기간 마무리 공사와 배전의 노련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상조변에 따른 것처럼 어항공사도 어민의 소중한

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에 순간적인 작심 실수가 곧 어민의 큰 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항공사는 언제든 보완시공이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항인 모두는 최상의 노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련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어항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어항인들 이 매년 직장을 아쉬움을 느끼기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공사 시기가 태풍기를 피한 겨울철 공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전 제했을 때 가능하다면 연초부터 어항공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안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공사 시기가 태풍기를 피한 겨울철 공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전 제했을 때 가능하다면 연초부터 어항공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안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공사 시기가 태풍기를 피한 겨울철 공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전 제했을 때 가능하다면 연초부터 어항공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안이다.

早期발주로 年例적인 악순환막자 예산배정·설계·계약 등 서둘러야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공사 시기가 태풍기를 피한 겨울철 공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전 제했을 때 가능하다면 연초부터 어항공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안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항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선 공사 시기가 태풍기를 피한 겨울철 공사가 훨씬 더 용이하다고 전 제했을 때 가능하다면 연초부터 어항공사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최선의 방안이다.

일본 제45회 全國漁港大會 성료

여유롭고 親和하는 어항·어촌만들기 다짐

제 9 차 정비 계획 수립 사업비 3조 4천억엔

환경정비사업 등 추진 건의

제45회 일본전국어항대회 전체 의결이 결정됐다. 회가 지난 10월 27일 동경국기관에서 개최됐다. 전국 어항관계자 4천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룬 이날 어항대회에서는 21세기를 목표로 '새로운 시점에 선 어항'을 만들기 위해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을 3조 4천억엔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은 환경정비사업 1조 4천억엔, 어항정비사업 2조 4천억엔으로 구성된다.



■ 제45회전국어항대회가 지난 10월27일 동경국기관에서 열었다.

5차 해안사업 계획도

제5차 해안사업 계획도(안)가 수립됐다. 이 계획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해안사업은 어항정비사업과 함께 어촌정비사업, 어촌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한다. 총 예산은 1조 5천억엔으로, 해안사업은 8천억엔, 어항정비사업은 3천억엔, 어촌정비사업은 4천억엔으로 구성된다.



■ 4천7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사상 최대의 성황을 이루었다.



■ 대회 단상에서 순정식 회장이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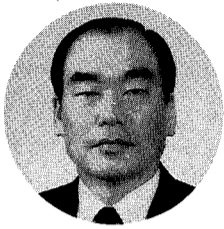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

대회선언문 채택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어항정비사업, 어촌정비사업, 어촌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한다. 총 예산은 1조 5천억엔으로, 어항정비사업은 8천억엔, 어촌정비사업은 4천억엔, 어촌환경정비사업은 3천억엔으로 구성된다. 이 선언문은 어항정비사업, 어촌정비사업, 어촌환경정비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회수 수산부장관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제45회 전국어항대회에 참석했다. 이회수 부총리 겸 수산부 장관은 11월 11일 개막식을 주재하고, 12일에는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특별토론회를 주관했다. 그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주제로 한 특별토론회를 주관했다. 이회수 부총리 겸 수산부 장관은 11월 11일 개막식을 주재하고, 12일에는 제9차 어항정비장기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특별토론회를 주관했다.



李義秀 수산부장관

제3차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가 12월 16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李方鎬 수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에서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가 12월 16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가 12월 16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가 12월 16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어항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토론회가 12월 16일 동경에서 열렸다. 이회수 수산부 장관이 주재하고, 어항정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어항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감리시장 조기 개방

국내건설업체 체질개선하러



■ 건설부는 국내 감리시장을 조기에 개방, 국내 업체들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외국업체 설립 부실시공 예방 강화

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17일부 국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국내감리 수주를 선진 내 감리시장을 조기에 개방, 국제경쟁을 통한 국내업체들의 체질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외국업체가 1백% 출자하는 감리업체의 설립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국내업체들이 사우디 등 해외시장에 선 우수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국내에선 부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공사감리가 형식적으로

어선은내물같이 어항은내질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고 지적, 해외의 우수한 감리업체들이 국내공사감 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 리를 직접 담당할 수 있 건설관련 입찰 과감히 개선

시장개방 충격 최소화

건설부는 정부조달협정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 국내 건설시장 개방에 따 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민간자율을 증시하 건설행정의 과감한 혁

자율방재 생활화

수산청 94방재집행계획서 강조

수산청은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94 방재집행계획을 마련, 각 시도와 산하기관 단체에 통보했다. 수산청의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신 재해대책' 추진 지침에 따라 인명피해

수산청의 재해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분야에 대한 94 방재집행계획을 마련, 각 시도와 산하기관 단체에 통보했다.



黃今秋 사장

추천

▲ 조흥제씨(주식회사새건설) 대표이사 이종만(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2호 전화: 511-0600)

▲ 유영해씨(리인터내셔널) 부장(개인)

▲ 유영해씨(리인터내셔널) 부장(개인)

▲ 유영해씨(리인터내셔널) 부장(개인)

▲ 유영해씨(리인터내셔널) 부장(개인)

주소 변경

▲ 장정남(덕우수산주식회사) 사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0동 305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 서승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최근 경기도 안산시 성동동 587번지 주안아파트 303동 401호로 주소를 변경했다.

▲ 조정우(삼부도건설주식회사) 명예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장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산리 신영동이다.

▲ 조정우(삼부도건설주식회사) 명예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장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산리 신영동이다.

▲ 조정우(삼부도건설주식회사) 명예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장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산리 신영동이다.

▲ 조정우(삼부도건설주식회사) 명예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장지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산리 신영동이다.

다대포항 건설 본격화

다대포항 건설사업이 오는 95년부터 본격 시행 된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2천억원(민자 1천300억원)을 들여 1천300여평을 차지하는 부산항내 다대포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業種

主要業務

이상어항 건설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株)大永엔지니어링

서울特別市 江南區 大峙洞 1007-3
電話 : 556-4227, 556-0736~8
FAX : 553-6123

- 專門技術 用役業
- 技術部門 : 建設部門
- 專門分野 : 港灣, 海岸

- 國內外 港灣의 開發, 整備 및 建設을 爲한 計劃, 調査, 實施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1, 2, 3種 漁港의 開發, 施設計劃, 調査, 實施設計, 技術用役 및 其他 技術諮問
- 一般土木 建設事業의 計劃調査, 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建設工事의 先進技術導入, 新工法開發研究, 技術指導 및 諮問用役
- 土質 및 基礎에 關한 調査, 試驗設計 및 技術諮問
- 建設事業에 隨伴된 各種 機資材의 調達에 關한 技術用役
- 造船 施設 計劃 設計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52)

冷凍 冷蔵施設用地

다. 이 경우 어선에서 동결한 어획물만을 보관하는 어항에서는 냉동시설을 계획할 필요는 없으나 급속 동결할 필요가 있는 어항에서는 냉장 시설과 같이 계획되는 일이 많다. 또 어종별 저장온도 저장기간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또 최근에는 양식용 이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냉장고가 늘어나고 있다. 냉장시설은 보관온도 범위에 따라 <표 1>과 같이 4단계로 구분된다. 냉동어류를 보관하는데는 -15℃이하의 온도 즉 F급, C1급의 능력이

<표 1> 냉장고의 보관조건과 보관물품명

항목	유지 온도(℃)		보관물품명
	범위	기준온도	
F급	-20 이하	-23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등
C1급	-15~-20	-15	아이스크림(단기), 동결어, 동결육 등
C2급	-2~-10	-6	동란, 치즈, 햄, 훈제식품 등
C3급	-2~-10이하	0	선어(단기), 과일, 야채, 생육, 우유 등

<표 2> 어종별 저장 온도, 저장 기간

어종	저장 온도	저장 기간
간고등어, 참치	-45℃	1~2년
기름이 많은 어종 (멸치, 꽁치, 고등어 등)	-18℃	2~3개월
	-25℃	3~5 "
	-29℃	6 "
기름이 적은 어종 (가자미, 오징어, 돔 등)	-18℃	4~6개월
	-25℃	7~10 "
닭 새우, 게	-18℃	2개월
새우	-18℃	6개월
굴	-18℃	2~4개월

개설 어항에 있어서 냉동·냉장시설은 어획물의 선도 유지, 가공제품의 보관, 어가변동 조정 등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수산물과 관련된 냉장시설을 설치하는 지점(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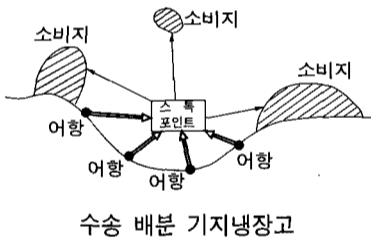
- ①생산지 냉장고 ②소비지 냉장고 ③가공 공장등 병설 냉장고 ④수송 배분 기지 냉장고 등이다.

여기서 생산지 냉장고는 어항과 가장 관계가 깊다. 주요 양류지는 물론 소규모 이상, 각 단계의 생산지(어항)에서도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다.

소비지 냉장고는 소비지인 도시 등에서 생산 어패류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가공공장등 병설 냉장고는 주요 양류지 또는 주요 수산가공품 생산지 등의 가공공장에 병설하여 가공원료의 안정적 확보, 제품의 보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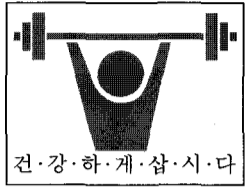
수송배분 기지 냉장고는 그림과 같이 각 생산지와 소비지간에 스톡포인트를 설치하여 수산물의 집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겨울의 문턱에 다가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따듯한 차한잔과 난로결이 그리워질 날도 멀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계절이 따로 있을리 없다. 겨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흔히 생기는 병은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겨울에 흔한 질병을 중심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알아보기로 한다.

모든 사람이 겨울과 함께 연상하는 것은 추위, 눈, 외투 등이며 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추위와 감기가 동행



겨울철건강

청결, 과로피하면 감기에 예방 동상은 급속 난온치료가 효과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기는 여름에도 걸리니까 추위와 계절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되어 콧물, 코막힘, 기침, 목 아픔, 때로는 열을 동반하는 질환을 감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계절이 겨울에 좀더 흔한 것이다.

감기에 대한 예방 방법으로 는 백신에 의한 것, 약물에 의한 것,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지만 백신이나 약물에 의한 예방법은 그 효과가 확실치 않다고 생각되고 있다. 예방을 하려면 겨울철만 되면 동상 때문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 한 손가락을 세우고 적당 한 운동을 하여 동상을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하는 방법이다. TV광고 부조작이 심해 영하 2도 내지 영하 10도의 찬기운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소 소비가 저하되고 세포의 대사가 정지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동상의 증상(한병)에 노출 되어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의 없으나 다시 따뜻한 곳에 들 어가면 홍반, 종창발적, 소양 감 등을 나타낸다.

동상의 치료는 40~42℃의 온수에서 손발의 색이 분홍빛 을 띠 때까지 담궈두는 급속 난온 치료가 효과가 좋다. 치유 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한 운동을 하여 동상을 예방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세
(1) 과세표준
○ 건축물, 중기, 선박 및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세율
○ 공장, 사무실, 점포 등 일반재산에 대한 세율은 0.3%이며, 주거용 건축물은 가액에 따라 0.3~7%의 초과누진 세율로 되어 있다.

○ 농가와 일반 선박의 세율은 0.3%인데 비하여, 골프장, 별장, 고급요양장, 고급선박 등 사치성재산의 세율은 일반세율의 16.7배인 5%이다.

○ 비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에는 일반세율의 5배인 1.5%의 세율을 5년간 적용하고, 전국의 시지역내 주거지역 등의 공장은 일반세율의 2배인 0.6%이며, 항공기, 중기의 세율은 0.3%이다.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과세한다.

(5) 비과세 및 감면
○ 재산세의 경우에도 비과세 또는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비영리사업자가 종교, 자

지방세

종교, 자선, 학술 등 용도의 재산엔 비과세

선, 학술 등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며, 농협 등 18개 법인과 지방공단내 입주업체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증권감독원 등 17개 법인은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의 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농지세
(1) 과세표준과 세율
○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일정기간의 농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최저 3%에서 최고 50%까지 초과누진세율로 하고 있다.

○ 농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농지소득금액은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이다.

(2) 납부
○ 농지세는 납세의무자가 8월과 12월에 각각 시장·군수의 고지에 의한 중간에납을 하고, 다음해 1월에 소득금액확정신고서를 하면 시장·군수는 2월에 확정하게 된다.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삼, 담배 등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징수도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3) 비과세 감면
○ 학교, 교아원, 수녀원 등의 자가소비를 위한 농지소득과 개간·간척으로 인한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가 비과세되며, ○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농지세가 감면된다.

○ 한편,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토지세
(1) 과세대상
○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이다.

(2) 납세의무자
○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및 납기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공장용지,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종전의 재산세(토지분)와 같이 분리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의 경우 종전 재산세의 기본세율 0.3%를 0.2%로 인하하여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0.2% 내지 5%)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9단계의 초과누진세율(0.3% 내지 2.0%)로 하며, 분리과세 대상은 현행 재산세의 세율과 같이 자경농지,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는 0.1%, 기준면적 내의 공장용지 등은 0.3%, 사치성 토지는 5%로 한다.

○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4) 토지변동 신고
○ 토지소유권의 변동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비과세와 감면
○ 재산세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다.

生活경제